

## 전남

■ 해수온도 변화 연근해 어종 서식지도 변동

# 서해 대구 많이 잡히고 동해는 오징어 사라져

올해 지속된 이상기온으로 인한 해수온도의 변화로 동해와 서해에서 잡히는 어류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

동해 대표적인 어종인 오징어가 줄어든 대신 도루묵 어획량이 늘고 있으며, 서해 역시 동해에서 주로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냉수성 어류 대구 서해에서 잡혀=국립 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부터 10일간 시험조사선을 타고 서해 한·중·일정조차 수역에 10개 해구에서 자원조사를 한 결과 상당량의 어린 대구(몸길이 10~12cm)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구는 여름 저층 냉수대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는 여름이 되면 표층수온이 올라가면서 강한 수온약층(수온의

급격한 변화층)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저층은 폐쇄된 냉수대(7~9도)가 형성된다. 이런 해양특성으로 둘째성 플랑크톤인 '난바다곤쟁이'가 수온약층 아래에 다량 서식하게 되며 이를 먹이로 하는 작은 새우류와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게 된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냉수성 어류이자 먹이사슬의 윗단계에 있는 어린 대구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서해안에서 해양 전체 대구 어획량의 25% 정도인 1000~3000t 정도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고 말했다.

◇ 오징어 사라진 자리에 도루묵 = 동해의 경우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한류성 어종인 도루묵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 활동해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12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20t에 비해 918t이 감소했다.

그러나 가을에서 겨울철에 주로 잡히는 도루묵은 이 기간 105t이 잡혀 지난해 7~8월 75t에 비해 30t이 증가했다.

특히 도루묵은 8월 한 달간 86t이 잡혀 지난해 같은 기간 39t에 비해 47t이 증가했다.

이처럼 오징어 어획이 줄어들고 도루묵 어획이 늘어나는 것은 일단 해수온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수산연구소 김상우 박사는 "어종별 어획량 증감은 해수온도 변화에 주된 원인이 있다"며 "여름 전반적으로 동해안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낮았던 것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완도 장보고배

## 산악자전거대회

내달 24~25일

'제1회 완도 장보고배 및 제13회 국민생활체육회장 전국 산악 자전거대회'가 9월 24~25일 이틀간 완도에서 열린다.

국민생활체육회와 완도군 생활체육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상황봉(해발 648m) 임도를 중심으로 해변경관이 뛰어난 해안도로와 산악도로를 완주하는 47km 크로스 컨트리로 17개부 개인전과 클럽대항전(단체전)으로 치러진다.

완도군 관계자는 "참가선수와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대체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여 완도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전국 자전거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대회관련 문의는 전국 자전거연합회(02-420-5430)와 완도군청 문화체육과(061-550-5480)로 하면 된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여수박람회 국제관 지붕 다도해 설치

최근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관 건물 지붕 위에 다도해의 섬들을 형상화한 상징물이 올려졌다. 14개 구조물 가운데 2개 내부에는 박람회장 앞바다와 오동도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된다. <여수 세계박람회조직위 제공>

## 해남 화원 초기청자 가마터 재조명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내달 2일 학술대회

끌고 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9월 2일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 산재한 초기 청자 가마터가 간척사업과 경작 등으로 인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곳은 고시기에서 청자로 넓어가는 9~10세기 초에 발생한 독자적인 특성을 갖는 한국 도자사(陶磁史)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2차례의 지표조사만 있었을 뿐 발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사이 가마터는 간척사업과 경작으로 점차 훼손되고 있다.

대규모의 집단 가마터가 확인됐지만, 이를마저 녹청자(綠青瓷)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녹청자 대신 '해남 청자'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관심을

국 청자 발생문제와 해양을 통한 청자교류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게 된다.

학술대회와 함께 청자 이전의 영암 구림도기, 화원의 초기 청자요지, 그리고 산이면의 청자요지, 강진의 고려청자 전시관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국가사적 제310호'로 지정된 해남 청자 가마터가 발견된 지 28년이 지났지만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지난 1983년 발견된 산이면 진산리 일대 가마터는 106기로, 청자와 흑유, 도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한국 청자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영암천 생태하천 탈바꿈

## 2013년까지 99억원 들여 복구사업

영암읍을 가로지르는 영암천이 오는 2013년 생태하천으로 탈바꿈된다.

영암군은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사업비 99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3년 완공목표로 수질 정화 능력이 탁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29일 밝혔다.

공사구간은 영암읍 월출교~덕진교와 덕진교와 도포면 성산재~수산교 등 모두 총 5.3km이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하천 내 수질개선을 위해 제내지에 하루 1만9000t 처리용량의 수질정화 습지를 조성해 오염된 하천수를 정화시켜 본천으로 유입하도록

복 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하천변에 친환경 생태틀럭을 시공하고 꽃창포 등 정화능력이 탁월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수생식물을 식재해 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과 아이들의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제방 상단부에는 자전거도로와 운동기구, 전망데크를 설치, 군민들의 심신 단련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와 생태복원, 역사·문화가 어울리는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산 흑마늘은 계르마늘이 풍부한 것별토양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 신안 흑마늘 발효 진액 음료 출시

신안산 흑마늘을 발효시켜 알 예방 등 항산화 작용을 높인 진액음료가 출시돼 눈길을 모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과 농협, 농업인 등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신안그린유통(이하 자체 마늘식품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흑마늘 진액음료를 개발해 시장에 선보였다.

2008년 마늘종합유통사업을 위해 설립한 신안그린유통은 지난해 시·군유동회사로 선정돼 주력품목인 마늘은 물론 산안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하루 20t의 마늘을 가공할 수 있는 300평 규모의 깐마늘 공장과 하루 최대 흑마늘 진액 350ℓ를 만들 수 있는 마늘식품가공공장을 세워 신안에서 생산된 흑마늘을 이용한 진액음료를 개발했다.

이기력 신안그린유통 대표는 "마늘가공을 통해 회사 운영기반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인력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산 흑마늘은 계르마늘이 풍부한 것별토양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고 저장성이 좋은 친환경 농산물로 잘 알려져 있다. 흑마늘 진액은 100% 신안산 생마늘을 일정한 운도와 습도에서 30여일간 발효·숙성시킨 것으로 마늘냄새를 유발하는 훠성 성분이 줄어들고 과당 함량이 높아져 새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으로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이기력 신안그린유통 대표는 "마늘가공을 통해 회사 운영기반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인력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흑마늘 진액을 통해 신안군의 특색을 살리고 농수산식품부와 목포 대가 후원하는 이번 소금박람회는 '소금의 선택'이 맛과 건강을 결합합니다'를 주제로 40개 기업이 참가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발

## 천일염 성지 신안 증도서 소금박람회 내달 2일부터 3일간

전남산 갯벌 천일염과 슬로시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을 연계한 2011 소금박람회가 다음달 2일부터 3일간 천일염 생산 현장인 신안군 증도 우전해변과 태평염전에 초청해 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소금은 천일염, 제염염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미네랄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천일염을 활용한 가공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이번 박람회에서도 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관련 제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열리는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천일염을 이용한 가공 소금(자죽염)의 약리적 효과와 소금의 품질등급화를 위한 원산지별 품질특성, 천일염을 이용한 전통 발효식품, 수출정책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도 열린다.

소금박람회는 산업관계자 초청 행사임을 감안해 관광지 슬로시티 증도 방문에 따른 입장료와 전기차 투어는 무료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가은 부동산

## 상무지구 스타박스 빌딩매매(8층)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매매금액 : 13억원  
-모든 업종 가능

## 상무지구 스타박스 빌딩 임대

-분양면적 : 450평  
-전용면적 : 300평  
-임대료 : 300만/평  
-층 수 : 9, 10층  
-층 고 : 10미터  
-모든 업종 가능  
(공동 중개 가능)

상무지구 랜드피아 사거리 371-4449 010-8289-8549

## 대인동삼일부동산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리킨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문을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은행 신도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물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 나주혁신도시 전문

##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주택지 • 협의주택지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 나라공인중개사

##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 준공  
• 대 : 9,800㎡, 임야 : 1,397㎡

케모도 1월 23평 3개동, 케모도 10평형 17개동, 관리동 1칸, 각각 독채형  
수지차장(현비), 수리한정지, 수원원, 기도원적합, 여우대지, 막을, 계곡이 있음

• 매매가 : 13억(군세당299천원/합)

• 토지가격 : 11억/천

## 모텔 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월출면 월출면 월출리

• 대 : 103㎡, 건물 105㎡

• 지하 1층지상 2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유통선단입구

• 매매가 : 10억(군세당36천원/합)

• 토지가격 : 6억/천

## 토지 매도

광주광역시 북구 문정동 한성리 애월온천부근 고너